

특집

대학에서의 글쓰기 교육

기획의 말

기초 교양교육에서 글쓰기의 역할:

손동현 교수에게 듣는다_김준성

학제적 교양교과목으로서의 글쓰기 교육_하병학

사고력 계발로서의 글쓰기 교육_신상규

글쓰기 과목들의 전문성과 상호 관계_김난도

최근 몇 년 사이에 여러 대학들은 글쓰기를 정규 교과과정으로 지정하여 학생들에게 글쓰기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학생들의 글쓰기 능력에 대한 여러 평가들이 있었지만, 대학이 특별히 글쓰기 교육에 관심을 가지는 현상은 사람들에게 몇 가지 의문을 갖게 한다. 첫째, 이미 대학 교과과정에서 ‘국어’나 ‘작문’ 과목이 글쓰기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데 특별히 글쓰기란 이름을 가진 교과목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둘째, 현재 이루어지는 대학교육의 어떤 문제점들이 대학으로 하여금 글쓰기 교육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만들었는가? 셋째, 글쓰기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학교 밖에서의 요구가 있는가? 넷째, 글쓰기 교육이 전문 교과과정으로 반드시 필요하다면, 그 교육의 내용은 기존의 글쓰기 교육과 어떤 차이를 가지며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이런 의문들에 대한 답이 제시된다면 최근에 대학들이 보여준 글쓰기 교육에 대한 관심뿐 아니라 그동안 주목되지 않은 글쓰기 교육의 중요성과 역할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호 『가르침과 배움』(제8호)은 이런 질문들의 답을 찾는 과정으로써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글쓰기 교육의 목적 및 내용 그리고 전망에 대한 네 분 선생님들의 말씀을 실었다. 금년 1학기에 문을 연 성균관대학교 학부대학의 초대 학장인 손동현 교수(철학과)는 인터뷰를 통해서 기초 교양교육에서 글쓰기 교육이 중요한 이유와 현재 학부대학에서 이루어지는 글쓰기 교육의 내용을 소개하고 이 교육의 목적이 달성되기

위하여 필요한 제안을 한다. 가톨릭대학교의 하병학 교수(교양교육원)는 학생들의 창의력, 분석력, 문제 해결력을 계발하는 학제적 교양 교과목에서의 글쓰기 교육의 내용 및 필요성을 소개하면서 기존의 ‘대학국어’ 및 ‘작문’ 교육과의 차이점을 설명한다. 숙명여자대학교의 신상규 교수(의사소통능력개발센터)는 학생들의 사고 능력에 초점을 두고 있는 글쓰기 교육의 목적과 문제 중심 학습으로서의 교육 내용을 소개한다. 서울대학교의 김난도 교수(생활과학대학)는 서울대의 여러 글쓰기 교과목들을 분석 및 평가하면서 이들 교과목이 더 나은 성과들을 거두기 위해 필요한 협력 방법을 소개한다. 이번 호 특집은 네 분 교수님들의 말씀을 통해서 대학의 교과목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 글쓰기 교육의 의미와 중요성을 다시 생각해보는 자리가 될 것이다. 